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 돌풍…속타는 한수원

지진으로 통제 불능 현실 그려…5일만에 150만 관객 동원
전문가 “위험성 정확히 반영”…시민 불신 키울까 좌불안석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다룬 재난영화 ‘판도라’가 흥행 조짐을 보이자 원전 운전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애를 태우고 있다.

개봉 5일째인 지난 11일 관객동원 수가 150만명에 육박하고 “영화를 보면서 원전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사고 나면 회복 불가능”이라는 관객 반응이 쏟아지면서다.

특히 설계 수명에 근접한 노후 원전이 강력한 지진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거대한 재앙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원전 전문가들은 물론 한수원 내부에서 “일부 과장됐지만,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다. 소름마져 너무 리얼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수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2일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면, 영화의 배경은 영남권으로 사고를 일으킨 노후 원전은 ‘한빛원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지난 2011년 강진에 따른 해일로 재앙을 맞는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하게 설계 수명 40년에 육박한 한빛원전도 강력한 지진으로 문제가 시작된다.

엄청난 온도로 끓어오르는 원자로를 식힐 냉각재 공급 펌프와 전기 계통 쪽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원자로 건물 내 수소

압력이 높아져 1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인명 피해가 나고 원전은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든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를 축소하는 세력이 활개치면서 주민 소개령은 늦어지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전의 공극적 사고 <광주일보 6월 7·8·10일자 1·6면, 10월 13일자 7면>로 빠져든다. 어마어마한 양의 폐연료봉(사용후핵연료)이 보관 중인 물탱크(수영장 같은 수조)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원전 격납건물(돔 모양)이 아닌 일반 건물 내 수조 속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은 냉각재(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녹아내린다. 격납 건물처럼 견고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어서 방사성 물질이 견집을 수 없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 원전 전문가들은 “원자로보다 폐연료봉 수조가 더 위험하다”고 한결같이 지적받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폐연료봉 부실 보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전 사고 해석 및 방사능화해 전문가인 한병섭 박사는 “영화 판도라가 조금 과장은 있지만, (사고나 위험성의) 요지는 정



한빛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확하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6개 호기가 가동 중인 영광 한빛원전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693다발의 폐연료봉이 보관 중이며, 보조건물 안의 가로 21.6~10.4m, 세로 8.0~8.5m, 수심 12m의 수조에 냉각펌프 2대에 의지해 쌓이고 있다.

영화 판도라의 개봉 시점도 경주 강진 이후 커진 국민의 지진 공포, 노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쏟아지는 시점에 개봉한 점도 한수원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한수원 측이 위안을 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소장과 발전소 직원들이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사고 원전을 수습하려고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사투하는 부분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소 설비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 제어실은 물론 조그



영화 ‘판도라’ 포스터

만 소름까지도 너무 리얼하게 표현돼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에서는 극한으로 치닫는 사고 원전을 페로(때기) 하지 않고 재 활용하려고 바닷물 사용(냉각재)을 한수원이 끝까지 막다가 사태를 더 키우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원전 사고 이후 대피 과정에서 도로에 주민들이 쓰러지는 장면이나 어떻게든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미루는 모습도 상상할 수 없는 설정”이라고 반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2
해질녘 17:21
달출몰 16:59
달지름 06:08

내일부터 강추위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6/11	보성	5/11
목포	7/10	순천	7/12
여수	9/11	영광	4/10
나주	5/11	진도	8/10
완도	8/11	진주	6/11
구례	4/11	군산	4/9
강진	7/11	남원	5/9
해남	7/11	축산도	7/9
장성	5/10		

◇바다 날씨

	오전	오전	오전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	북~북동	0.5	북서~북
남부	북~북동	0.5~1.5	북서~북
남해	북서~북	0.5~1.0	북서~북
서부	북서~북	0.5~1.5	북서~북
남부	북동~동	1.0~2.0	북~북동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22	00:51
	19:00	13:38
여수	01:56	08:30
	14:32	20:41

◇주간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0/6	-3/3	-2/4	-3/9	-1/11	2/11	5/12



◇생활지수

	보통
	보통
	관심

15·16일 광주 첫 눈 온다

15~16일 광주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광주·전남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16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같은 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고 파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15일 광주의 예상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3도 수준이다.

13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4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17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함평골프고 골프실습장 16일 투자심사

예결위 예산 전액 삭감 속 주목

함평골프고 인근에 18홀 규모의 ‘교육용 골프실습장’을 짓겠다는 전남도교육청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를 열고 도교육청의 함평골프고 인근 교육용 골프실습장(18홀) 사업의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도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시설계획의 마지막 검증 절차로, 학교 신설은 중투위 승인을 받

아야 교부금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는 중투위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100억원을 편성했다가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5월과 8월 중투위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나 골프실습장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 판단을 받았음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세 번째 심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438억원 규모의 총사업비를 35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비 확보 계획을 줄이는가 하면, 자체 재원(100억원)과 민간투자(100억원), 지자체 지원(50억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왔다. /김지용기자 dok2000@

전남 AI 살처분 14만마리…6500곳 내일까지 이동중지

국내 최대 오리산지 나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도 H5N6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현재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도살처분된 가금류는 887만8000마리로 집계됐고, 앞으로 154만1000마리가 추가도살 처분될 예정이다. 10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산란율이 떨어져 의심 신고된 나주시 남평읍 씨오리 농장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판정 전이지만 축산당국은 해당 농가의 오리 1만74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전남 살처분 규모는 발생지 주변 농가까지 포함해 14 농가, 14만 마리로 늘었다. 살처분 보상금(추정치)도 25억원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해남·무안·장성에서 1건씩, 나주에서 2건의 AI가 확진됐다. 남평읍 농장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 모두 6건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국 가금 관련 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한 후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령했다.



가금류 차량 소독 꼼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12일 나주시 이창동에 설치된 방역초소에서도 가금류 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지역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6500곳이다.

발령 시간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종사자, 차량

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 이동 중인 경우에는 가족방역 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해제까지 잔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하면 방역조치 후 관련 지역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해 승인

을 받고 이동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동중지 기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취객자를 일제 소독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우체국 예금

마음을 전하는
우체국 Post Pay

좋은 친구,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이용 혜택

우체국금융홈페이지 : www.epostbank.kr
우체국금융고객센터 : 1599-1900/1588-1900

경조송금

휴대전화번호나 주소로 경조송금

마음을 담은 경조카드 발송

간편송금

빠르고 간편한 송금서비스

체크카드

스마트폰에서 체크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Post Pay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
“우체국 택배 왔어요!”

우체국 택배

우체국 국제특송 EMS